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59-권 - 운담영당

봉래 양사언 선생의 영정과 위패 봉안하고 제향 올리는 사당



최중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 포천시향토유적 제 46호
- 명칭 : 운담영당
- 수량 및 면적 : 3동(사당 38.71㎡, 심문 13.56㎡, 재실 33.06㎡)
- 소유자 : 운담영당 관리위원회
- 소재지 : 일동면 화대리 625-1
- 지정년월일 : '2006. 4. 5
- 관리단체/관리부처 : 양문택

운담영당은 뜻 있는 지역유지

인사들에 의하여 1915년 음력 10월에 건립되었다. 주자, 송시열, 이항로, 김평묵 네 분의 영정을 봉안하고 향사를 모시어 오다가 6·25때 전소되었다.

운담영당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 경기도 및 포천군 보조금으로 99년10월29일 준공되면서 안향 선생을 추가 배향하였다.

김평묵(1819~1891) 선생은 조선후기의 대학자로 높이 추앙을 받고 있다. 포천의 동음사 외에 경원단, 보산서원, 미원서원에도 배향되어 있다.

주자(朱子, 1130~1200)는 중국 송대의 유학자. 주자학을 집대성하였다. 그는 우주와 형이상학적인 '이(理)'와 형이하학적인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송시열 (宋時烈, 1607~1689)은 조선 후기 문신 겸 학자, 노론의 영수. 주자학의 대가로서



이이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황의 이원론적인 이기호발설을 배격하고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을 지지, 사단칠정사 모두 이라 하여 일원론적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예론에도 밝았다.

이항로(李恒老, 1792~1868)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병인양요 때 주전론을 주장하였다. 경복궁 중건 중지와 취림의

시정을 촉구하는 등 최초로 대원군의 정책에 반대, 배척을 받았다.

안향 (安珦, 1243~1306) 고려시대의 문신이자 학자로 충렬왕 때 감찰시어사·밀직시사·삼사좌사 등을 지냈으며 삼학전(三學殿)이란 유적재단을 설치하고 제기(祭器)·악기(樂器) 등의 책을 구입하여 유학진흥에 큰 공적을 남겼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우리는 여성판사시대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박정근 대한법률전문연구소 교수

여권진장의 바로미터를 주요 요직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숫자로 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몇몇 잘 나가는 여성이 모든 여성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의 정확한 실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구색 맞추기 식의 여성에 대한 배려로 요직에 앉았는 여성이 많았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모 일간 신문에 여성들의 판사진출이 과격적으로 늘어난 현실과 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홀홀 단신으로 판사 임용대상이 되었다가 거부되었던 이태영 박사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상진벽해의 감회의 글이 실렸다. 여성판사의 비율이 19.1퍼센트에 이르고, 작년 사법시험 합격자 625명중에 37.62퍼센트의 여성이 차지했다는 놀라운 여성 진출의 증가에 통계를 접하면서 이제는 남성위주의 권위적 판사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성 판사의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자아가 판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기대한다

가진 나머지 빛을 제 날짜에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서의 명시된 그대로 상인 안토니오의 살 한 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안토니오의 친구인 남편 밍스니오를 돕기 위해 판사로 남장한 포사를 통해서 여성판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소개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살벌한 정의를 요구하는 비인간적인 사일룩에 대해서 포사는 여성적 가치관을 수용할 것을 설득한다. 자비심을 베풀라는 포사의 설득에 대해 사일룩이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하자 그녀는 이렇게 설득한다. "자비심의 본질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하늘에서 땅 위에 내리는 자비로운 비와 같은 것으로 이종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같이 축복하며, 가장 위력 있는 자에게도 최상으로 위대한 것이다. 육좌에 앉은 군주에게는 그 왕관보다 더 어울리는 것이다. 그가 손에 쥔 왕홀은 현재의 권력을 나타내나, 자비심은 황홀의 위력을 능가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판사가 죄를 저지른 자의 행위를 단지 법률상의 자구대로 적용하려한다면, 권력자의 의중만을 신경을 쓰는 나머지 법을 어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다면 세상은 온통 증오와 보복으로 가득 찬 생지옥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란 사람을 공생과 공익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성 판사로서 포사는 법이 정한 정의를 자구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는 사일룩에게 지구 뒤에 숨어있는 법의 인본주의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일룩은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내가 요구하는 살 일 파운드"는 고가의 대가를 치른 것이니까 그런 내 것이요. 그걸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신다면, 아니라 법률은 휴지나 다름없고, 베니스의 법령은 허수아비와 한가지지요."라고 강변한다.

사일룩은 정의라는 미명아래 주장하는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깨닫지 못했다. 우리 사회부의 오점을 남긴 판결처럼 체제수호를 위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사고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이노는 사일룩에게 "피타고라스가 주장했듯이 짐승의 혼이 사람 몸 속에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네놈의 그 개 같은 근성은 원래 늑대 속에 들어 있던 개, 사람을 잡아먹는 죄로 교수형을 당할 때에 그들의 흉악한 영혼이 교수대에서 도망쳐 나온 길로, 네 신체 속에 들어간 거지, 네가 더러운 네 머리 뺨속에 있을 때 말이다. 그래서 네 육신이 피에 굶주린 늑대같이 잔인한 거다."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판사가 아무리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그 정의를 인간적 가치를 어겼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포사는 사일룩에게 이 사회가 정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자비는 정의를 부드럽게 할 때 지상의 권력은 신의 권력에 가까워지는 것이요, 당신의 주장이 비록 정의에 의거한 것이기는 하나, 누구나 정의만 좇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하늘님께 자비를 기원하지만, 이 기원은 곧 우리를 상호간에 자비를 베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라고 그의 자비를 강조한다. 포사는 자신의 인간적인 제안을 거부하는 사일룩에게 범법한 심판을 내려 사회에서 영원히 소외시켜버리는 지혜를 발휘하지만, 권위적인 심판보다는 인간적인 설득을 앞세우는 자아가 돋보이는 것이다. 여성판사시대에 돌입하는 한국 사법부의 전망이 매우 밝으리라는 기대를 걸어본다.

“ 자비심의 본질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하늘에서 땅 위에 내리는 자비로운 비와 같은 것으로 이종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같이 축복하며, 가장 위력 있는 자에게도 최상으로 위대한 것이다. 육좌에 앉은 군주에게는 그 왕관보다 더 어울리는 것이다. 그가 손에 쥔 왕홀은 현세의 권력을 나타내나, 자비심은 왕홀의 위력을 능가하는 것이다. ”

우리는 얼마 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군사정권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충분한 변론과 사회적 공론화를 가지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반체제 인사의 경우를 보면서, 흘러간 세월의 역물함에 몸서리치며 울부짖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체험하였다. 권위적인 정치 판사들의 오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의나 공평 무사함을 기대하기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왜곡되는 사법부를 외면하게 하였으며, 급기야는 그들에게 석공을 겨누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다.

세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여성판사의 역할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시한다. 유대인 사일룩이 기독교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극도의 원한을

교육에세이 32

새 학년도, 새 학기의 각오



지정주 포천교육연구소

가나긴 겨울의 차갑고 매섭던 기운도 절기의 순환에 따라 새 봄을 맞이하려는 듯 봄비가 한 두차례 지나면서 동절기 내내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어 주고, 한결 따스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훈풍으로 바뀐 듯한 3월, 각급 학교에서는 2007학년도를 맞는 개학식과 더불어 입학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사망하는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3월은 새로운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유시유종(有始有終)' 이라고, 시작이 좋아야 끝이 또한 좋겠지요.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나머지 단추까지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 유명한 '기미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셨으며,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종합지 '소년'을 창간한 대선 각자이신 육담 최남선 선생은 '소년時言'을 통하여 "여러분은 뜻을 어떻게 세우시려오?" 라는 주제를 아래

"1일의 설계는 새벽에 있고, 1년의 설계는 살날에 있고, 일생의 설계는 유소(幼少)에 있나니, 여러분의 일생에 대하여 지금같이 중대한 시절은 없는 것이오....." 라고 호소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중요성과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씀을 후학들에게 남기셨습시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새 학기의 설계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임을 명심하고, 뚜렷한 목표와 일정한 계획을 세워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 새 학기 첫 출발을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새 학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을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와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스승의 은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인간성이 풍부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맹자의 공손추편(公孫추篇)에 사단칠정(四端七情)이 나오는데, 사단(四端)이란 네 가지 단서(端緒), 즉 인간의 본성(本性)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마음씨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 4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 "측은지심"을 으뜸의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 이는 곧,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는 IQ(지능지수)가 높은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EQ, 즉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성실한 자세로 늘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실이란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곧,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해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항상 책과 가까이 생활해야 합니다. 책은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지고한 문화적 산물입니다.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아울러 봄에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배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현 시대를 지칭하여 지식기반사회 또는 지식 혁명 시대라

고 하는데,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창출하고, 상상력을 개발하는 길은 바로 독서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해 가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평생 학습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학교 공부도 여러분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절대적이며 필수적입니다. 늘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책은 인생을 인간적 승리로 승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 한 세 가지 즉, 감사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평생 학습을 위해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자. 이상의 내용을 학생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 실천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찬 새봄에 새로운 각오로 신 학년 새 출발을 다짐하는 학생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아울러 부른 꿈과 기대 속에 입학한 신입생과 삼급 학년으로 진급한 2·3학년 모두에게 마음속 깊이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회원 모집

- ◆모집대상 : 경기민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국악 중·고등학교/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초·중·고등학생
- ◆모집과목 : 경기민요, 장구, 전통무용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3-4 유림회관 3층
- ◆연 락 처 : ☎ 031-535-1051/ 011-667-7129

지부 연혁

- 2003년 포천시 일동면 노인회 제1회 박영실 효 국악한마당 공연
- 2003년 남산한옥마을 경기민요 소리 한마당 공연
- 2003년 설날 칠성 놀이마당 우리소리 공연
- 2003년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주최 제1회 국악한마당 공연
- 2004년 제2회 박영실 효 국악한마당 공연
- 2004년 경기소리보존회 창립공연 및 박영실 개인발표회 공연
- 2004년 포천시민의 날 행사 경기소리 공연
- 2004년 경기문화재단 주최 2004년도 사랑나눔기 공연
- 2004년 신정호수 악새꽃 축제 축하공연
- 2004년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주최 제2회 국악한마당 공연
- 2005년 제3회 박영실 효 국악한마당 공연
- 2005년 특가노인 불꽃 위문공연
- 2005년 동농 이혜조 문학세미나 축하공연
- 2005년 제1회 포천시 장애인 어울마당 공연
- 2005년 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제2회 정기공연
- 2005년 KBS국악한마당 출연
- 2005년 포천시 외국인문화 축제가 페스티벌 공연
- 2005년 창작소리극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제1회 공연
- 2006년 제4회 박영실 효 국악한마당 공연
- 2006년 포천시 사회복지과 효친지 공연
- 2006년 대한노인회 포천시지부 공연
- 2006년 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제3회 정기공연
- 2006년 장애우와 함께하는 소리마당 공연
- 2006년 포천 성나자로마을 위문공연
- 2006년 포천시민단체 총 타종식 축하공연
- 2006년 포천 이동 숲축제 축하공연
- 2006년 창작소리극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제2회 공연



박영실 지부장프로필(사진)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목계월 선생) 경기민요 이수자
- 백제예술대학 전통공연과 졸업
-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민요분과위원장/이사/대외원
- 박영실 경기소리연구소 소장
- 포천시 여성대학 강사
-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목계월 경기12집가 전수소 입문
- 1996년 목계월 경기민요 보존회 전수
-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
- 2002년 일동초등학교 국악반 강사
- 2003년 포천 일동초등학교 국악반 강사
- 2003년 소울음 동남고등학교 국악반 강사
- 200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민요 지정 강사
- 2004년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 2005년 포천시립도서관 어린이 여름학교 경기민요 강사
- 1998년 전국 백일장대회 장원
- 1999년 제8회 전국 경서도소리 경향대회 준우승상
- 2000년 전국 민요경향대회 특출민요부 우수상 수상